

### 기다려야 하는 계절

#### 본문

시편 62

#### 생각하기

지난 몇주간 우리모두는 기다림의 계절을 접해야만 했다. 계획했던 특별한 여행이나 행사등이 취소나 미루어 졌는지를 기다리고 있다. 나라에서 주는 특별 지원금이 도착했는지를 기다리고 있다.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당신이 나와 같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이가 잠을 자는 저녁 7시까지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이 기다림의 계절은, 심 이나 구원, 안락함에 대해 불확실한 곳으로 데려왔다.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기다림에 익숙해 있었다.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청년이였을때, 미래의 왕으로써 기름부음 받은것을 배웠다. 사무엘하 5장에서, 처음 그가 기름부음을 받은 20년후, 30살이 될 때까지 왕으로써 군림하지 못한 것을 알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쉼, 구원, 안락함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넥플릭스의 다음이야기나, 먹을 것을 찾기위해 부엌 캐비닛을 뒤적거리는 것은, 불확실한 시간 속에 우리의 영혼에게 참 쉼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시편 62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의 말씀이고 권고의 말씀이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그의 소망이고 구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릴수 있었다. 주님은 다윗이 쉼을 찾는 그곳에 계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도는 이러한 계절을 포함한 모든 계절 속에서 신뢰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구원 이시다.

#### 적용

- 당신은 이전에 기다림의 계절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볼 수 있었는가?
- 지금과 같이 집에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쉼과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으로 쉼과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훈련 할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 기도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시간 속에 우리에게 안정과 평강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불완전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계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 by Kerry Trunfio

Kerry Trunfio is the Director of Youth Ministry and Local Outreach at Our Savior Lutheran Church in Topsfield, MA. She is a contributor to the [Rooted Ministry](#) blog.